

# 깨달음은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

###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밍규르 린포체 방한해 강연

"종교가 있든 없든, 불자이든 아니든, 명상은 특별한 사람만이 배울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다. 명상을 통한 자신의 불성을 찾는 일은 어두컴컴한 방의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다."

달라이 라마 이후 티베트 불교의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별칭을 얻은 은게이 밍규르 린포체(36·사단)가 한국을 방문했다.

은수 스님 등 제자들의 초청으로 방한한 은게이 밍규르 린포체는 2월 9일 인사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티베트 불교도 한국 불교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본성을 찾는 수행을 한다. 수행을 하면 자신의 불성(佛性)을 알아차려 행복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인도-홍콩-일본 일정을 거쳐 한국을 방문한 밍규르 린포체는 14일까지 백담사와 봉녕사를 찾았다. 12일에는 수원 공소사, 13일에는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중 법문을 했다.

은게이 밍규르 린포체는 1975년 네팔 누브

리 계곡에서 출생했다. 3세 때 17세기 명상 수행자이며 대학자인 은게이 밍규르 도르제의 7대 환생자로 밝혀졌다. 동시에 1950년대 중국의 침략으로 고향에서 추방된 위대한 티베트 스승 밍규르 린포체의 환생으로도 인정됐다. 뛰어난 두 스승이 밍규르 린포체의 육체로 동시에 환생한 것이다.

밍규르 린포체의 아버지 푼구 우르겐은 '위대한 완성'이라 불리는 티베트 불교의 축적 수행을 세상에 알린 스승이다.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한 밍규르는 아무런 가르침을 받지 않았음에도 어려서부터 혼자서 집 뒤 히말라야의 동굴로 올라가 명상을 하곤 했다.

밍규르는 극도로 예민한 감성을 지닌 탓에 유년시절 공황장애와 소심증, 대인공포증을 겪어야만 했다. 하지만 수행으로 이를 극복했다.

밍규르는 "가꾸어에서는 '내가 누구인가' '마음이 누구인가' 등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마음의 불성을 찾는 수행을 하고 있다"며 "마음의 불성과 인연을 맺고 그림으로써 본성을 이루고 모든 중생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깨달음에 대해 밍규르는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과 같다"고 말



한다. 그리고 어두운 방의 스위치를 찾으려면 '알아차림'을 발달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깨달음은 매우 단순하다. 어느 어두운 방을 습관적으로 지나다니면서 탁자, 의자, 그 밖의 가구에 부딪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하루는 운 좋게 혹은 우연히 전등을 켜는 스위치나 버튼을 건드리고 지나간다. 그 순간 갑자기 방 전체와 그 방에 있는 모든 가구들을 보게 되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다. '여기 이

많은 물건들 좀 봐! 내가 이 물건들에 부딪힌 건 당연한 일이야!' 그리고 그 물건들을 보면서 아마 최초로 그것들을 본 놀라움과 더불어 전등 스위치가 늘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가 단지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이다. 혹은 방이 어둡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깨달음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어둠 속을 더듬고 지나다니면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방에 불을 켜는 것이다."

밍규르 린포체는 "수행을 하면 나 자신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스스로 유연해지고, 변화할 수 있다. 부처님 말씀처럼 뇌도 변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며 "뇌신경과학자들도 수행하면 면역성도 높아져 건강이 좋아지고, 특히 심장병에 좋은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은게이 밍규르 린포체의 저서 <Joyful Wisdom>은 2009년 뉴욕타임스와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전 세계 13개국의 언어로 출간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티베트의 즐거운 지혜)(문학의 숲) 이름으로 출간됐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anmail.net

## 〈특별기고〉 내가 꿈꾸는 불교수목원

최근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숲에 대한 관심이 확산됐다. 한국도 1990년대 이후 산림관리 차원을 넘어 휴양 및 치유의 숲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돼 수목원과 휴양림이 속속 설립 운영되고 있다. 불교도 수목원 설립에 뜻을 모아야 한다.



불교는 삼보가 숲과 함께 해 온 숲의 종교다. 불교의 정체성과 포교강화를 위해서도 불교수목원은 있어야 한다. 경전에는 많은 식물들이 등장하는데, 한국불교가 불교수목원을 설립해 멸종 위기의 불교식물을 보존하는 것은 당연한 사명이다. 일부 사찰의 대형불사로 숲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수목원 조성을 통해 '숲을 살리고 생태를 보존하는 종교'로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놓을 수 있다. 현재 사찰림 관리와 사찰 조경식생에 많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는 바, 수목원을 조성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

용역 등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 조성 후 5년이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목원 개방은 완공 후에 일시에 개방하는 것보다 쉬운 것부터 3단계로 나누어 개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수목원의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 수익창출이 빠른 것부터 개방을 시작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치유·휴양·명상의 숲·수목장 조성이나 숲생태교육원 운영 등은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먼저 개방해 수익을 앞당겨 창출할 수 있다.

불교수목원 설립의 주체는 현실적으로 조계종이 가장 적임자이다. 재원은 불교계 재원과 정부 보조로 한다. 불교계 재원이란 재무구조가 탄탄한 조계종 대형사찰과 천태종 등 각종단이 투자 형식으로 협연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불교법인체나 불자들의 정성이 보태지면 더욱 좋을 것이다.

수목원이 아니라 1600㎡(약 50만평) 이상의 '수목원+휴양림' 형태의 다목적 종합수목원이 바람직하다. 불교수목원 조성은 적지 선정이 중요하다. 아열대식물원과 편백 삼나무 숲 조성은 가능한 충남과 호남 지역이 무난하다.

필자는 불교의 주체성을 살리고 시대적 역할을 다 하려면 상징적 사업으로 불교수목원이 타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종단의 결단력과 사부대중의 의식전환이다.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 대표)

많은 이들이 수목원의 사업성에 의문을 갖지만, 불교는 비교적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 넓은 사찰림이 전국에 산재해 있어 수목원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도 절반은 줄일 수 있다. 또, 조성 후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비롯해 묘목 판매, 기술과 연구



호대산 월정사 숲길

## 불교경전연구회, 통광 스님 강의 회향

3월 17일, 설우 스님 <금강경오가해> 강의 진행



역 등 각지에서 서울 옥수동 미타사로 모인 50여 명의 스님들은 8시간 동안 진행된 마지막강의에 끝까지 집중을 다해 수강했다.

<증도가>를 마지막 강의 주제로 진행한 통광 스님은 "이곳에 모여 수강하는 스님들은 한 지역의 스승인 일방사로서 포교일선에서 많은 노력을

"경전 연구를 잘 해도 수행하지 않으면 약 지어놓고 먹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2년 8개월 동안 불조의 조상어록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견성해서 인천의 스승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시작한 스님의 공부모임인 불교경전연구회(회장 무각)의 2년 결사 경전강좌가 1월 26일 회향했다.

불교경전연구회는 2년 8개월간 통광 스님(하동 칠불사 주지)을 강주로 <진심지설>(동산법어) <이입사해론> <증도가> <간화결의론> 등을 진행했다.

2년 여 동안 서울·경기와 아산·강릉 지

하고 있을 텐데 먼 곳까지 와서 경전 어록을 공부한다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라며 "배우는 것도 좋지만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 수행해 참된 것을 깨닫고 의지해 나간다면 견성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지도하는 법력이 생긴다. 그러니 말에 그치지 말고 부처님 진리를 깨치는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경전연구회는 3월 17일 목요일 오후3시 미타사에서 정주 범인정사 선원장 설우 스님을 강주로 제8회 경전강좌를 진행한다. 경전 강좌는 매달 3째 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되며 설우 스님은 1년간 <금강경오가해>를 강의할 계획이다.

이나는 기자

## 불교 역경지원 사업이 종교 편향?

서울신학대 박명수 교수 발언

박 교수는 크리스천투데이 2월 3일자에 '성경 번역은 자비량으로, 불교 경전은 정부 돈으로?' 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기고문에서 박명수 교수는 "불교의 역경 사업이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며 동국대 불교역경원을 예로 들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특정종교 지원을 부담스러워하던 정부가 학교법인인 동국대에 불교역경원을 설치해 정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정부 도움을 힘입어 역경원은 2001년 318권에 이르는 팔만대장경을 한글로 번역했다. 기독교의 성경번역사업이 내부 재원으로 진행된 것과 다르다"며 불교를 폄하하고 기독교를 치켜세웠다.

이와 관련 불교계 관계자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종교 편향적, 불교 폄해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이들이 불교에 대한 물이해와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박기범 기자

## 학창 시절 마지막 추억마저 종교자유 박탈

경기 고양 정발중 졸업식서

고양시 정발중학교가 졸업식을 지역 내 교회 부설 공간에서 진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정발중은 제16회 졸업식을 2월 10일 지역 내 예담교회 부속 예담아트홀에서 가졌다.

종교적 색채가 뚜렷한 교회에서 졸업식이 진행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관할 관청인 고양교육지원청도 학교 측에 졸업식 장소 선정 경위와 사유

를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 강당이 없는 정발중은 졸업식을 위해 지역 내 공연장 등 여러 시설을 알아봤지만 대관료가 비싸 무료 대관이 가능한 예담아트홀을 선정했다.

국선자 정발중 교감은 "아트홀 내부에 십자가나 종교를 상징하는 시설물이 전혀 없었다. 조화·종래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졸업식 장소 선정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 2011학년도 안정불교대학(전통강원/범패학과) 신입생 모집

본 대학의 설립목표는 부처님의 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심오한 불교의 진리를 체득케 하고 원만광대한 원력으로 보살도를 실천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학문과 수행을 겸비한 올바른 승가상 확립과 지혜와 자비를 갖춘 자아완성이 그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본교의 설립목적에 따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실한 법음을 받아 지니고 한국불교의 전통을 이어 수행코자 하는 참된 불제자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도량으로써 신라 천년고찰인 청련사(안정사) 대가람에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진을 모시고 기존의 범패학과와 더불어 전통강원의 전 교과 과정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출가자와 재가자를 막론하고 교육과 수행풍토의 진작을 통해 참다운 부처님 나라를 건설할 불교인재를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니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입학 응시를 바랍니다.



### 1. 교육과정 : 범패학과 (범음·범패)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1학년	기	초 : 목탁 잡고 치는법, 요령흔드는법, 삼귀의례, 사홍서원, 천수경, 도량식, 종승(전통범음)	상주권공 : 초월향, 등계, 정례, 합장계, 고향계, 개계, 새수계, 복정계, 사방찬, 도량계, 참회계
		예 : 향수해례, 사성례(육성례), 오문향례, 칠정례, 각단 조식 예불	작 : 천수바라, 도량계(나비춤), 요점바라(막바라)
2학년	시	공 : 삼보통칭 외 각종 불공의식	태칭치는 법, 복치는 법
		시 : 상용영반, 관음시식, 화음시식, 구방시식	
2학년	시	송경의식 : 입관, 발인, 화장의식, 매장의식, 반혼제 의식 등	
		시 : 시련, 대령, 관음, 신중적법(호호계, 봉칭, 39위), 지장청(상단), 신중퇴공, 관음시식, 공덕계, 봉송, 회향	시 : (재제비, 사물타루는 과정 및 범주, 바라지)
2학년	시	*한자계소리, 다계작법, 인성이소리, 관음태정(관음바라), 화의재바라, 거불, 육건이(소리춤), 특사가지, 사다라니 바라, 운심계(소리춤), 가지계(태정), 화청, 축원화청	1.실현행사에 대비한 유기적인 의식진행 (범주, 바라지, 목탁, 요령, 태정, 복)
			2.작법 고급과정 (사방유신, 귀경이, 향화계, 범고부, 음반 등 작법실습)
2학년	시		3.특강 : 절안의식, 생전에수행실질재 기타 의식 등에 관한 실기 및 설명

### 2. 교육과정 : 전통강원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1학년(치문반)		사미율의, 초발심자경문	치문
2학년(사집반)		도서, 서장	절요, 선요

\* 자세한 사항은 교학처로 문의하세요.

### 3. 전통강원과 범패학과는 각 학년 공통과목이며 전통강원과정이나 범패학과의 별도(단독) 수강도 가능합니다.

### 4. 입학 안내

- 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가능함
- 개강일시 : 2011년 3월 7일(월) 오후 3시~6시
- 입학식 : 2011년 3월 14일
- 강 주 : 전통강원-운범스님
- 수업시간 : 범패학과-상선스님 / 범패학과강사-일원스님
- 수업시간 : 범패학과-① 매주 월요일 오후3시~6시까지(기초과정) ② 매주 화요일 오후3시~8시까지(전문과정) 전통강원-매주 수요일 오후2시~5시까지(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강의장소 : 본 대학 강의실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1부, 반명함판 사진3매, 입학원서(본교 교학처에서 교부, 작성), 태고종승려 승적증명서 1부
- 강의과정 : 2년 과정(4학기) (전통강원·범패학과)
- 접수기간 : 수시접수(원임생은 시험 결과에 따라 등록 가능)
- 접 수 처 : 안정불교대학 교학처 <천년고찰 청련사(안정사)>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련리 산 180번지
- 문 의 처 : ☎ 031-836-0827

## 안정불교대학 학장 이백우